

原電에 대한 PA 活動과 活性化 對策



金 善 昶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常勤副會長

1. 서 론

한국에서는 1970년대 초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착공 이래 원자력발전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원자력발전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1979년 TMI원자력발전소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며, 한국 국내의 정치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는 원자력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보상요구 투쟁이 전개되고, 여기에 반핵단체들이 가세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부터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6년 이후 한국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Public Acceptance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여러가지 대응책이 강구되고 구체적인 PA 활동과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원전 활동과 PA 활동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앞으로의 PA 활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한국에서의 반원전 활동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수 년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여건에 있었습니다. 이는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기대도 컸었지만, 정보 부재에 기인했던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추구하는 국민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점점 비판적인 경향을 보여 반핵, 반원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원전단체들의 활동은 여러 단체들이 제각기 반공해, 반핵, 반원전을 외치다가 1988년 9월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면서부터 본격화하게 되었으며, 그후 네덜란드의 '그린피스', 독일의 '녹색당', 그리고 이탈리아의 '대지의 친구들' 등 해외의 반핵조직들과의 접촉과 연대의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반원전 단체들의 성향은 대부분 반정부적 및 반체제적 재야운동권과 연계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대개가 젊은이들이고 학생시절 학생운동권에 속했던 인사들의 참여가 특기할만 합니다. 또한 젊은 의료인과 반체제적인 지식인 일부가 반원전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집회 및 강연회 개최, 성명발표, 원폭피해 사진전, 연극, 무용, 신문 및 잡지의 기고, 그리고 공해와 반핵에 관한 책자 발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반

원전활동을 펴고 있으며, 특히 '88반공해선언'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990년 12월에는 방사성 폐기를 처분장 건설에 대해 그 지역주민들의 반핵 감정을 부추겼으며, 반원전단체들의 세력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을 주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언론의 특성상 비판적인 경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매체는 상당히 뚜렷한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로성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반원전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문제를 내세운 보상요구와 심지어 원전 철거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신규 원전부지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한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전망도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시위 등 가시적인 실력행사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반핵집단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더불어 원자력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반원전운동의 중심지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PA 활동 현황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Public Acceptance(PA)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하게 된 것은 1986년 이후의 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홍보활동, 즉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업내용의 홍보와 계기홍보 등이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KEPCO)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국민의 이해를 위한 PA활동은 역시 반원전 활동이 가시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와같이 총체적인 PA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1986년 3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원자력홍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7년 3월에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사무국내에 홍보부가 신설되어 PA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

原子力發電所消息

原電 주변 環境放射能 조사결과 異常없어

원전주변 지역주민과 인근 지방대학이 합동으로 원전주변 환경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다.

각원전 지역주민들은 원전별로 연간 2회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인근 지방대학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경북대 기초과학연구소는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이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를 작년 9월 19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원전에서 발표했다.

의는 PA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원자력산업 진
홍을 위한 국민홍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제1단계인 첫번째 5년 동안은 합의기반
확산기로서 언론인과 여론지도층에 홍보의 중점을

〈표1〉 원자력관련기관의 PA 활동 요약

기 관	주 요 홍 보 활 동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 홍보 : 홍보책자, 팜플렛 제작, 전시관 관람, 신문광고 - 언론인 홍보 : 간담회 개최, 원전시찰 - 여론지도층 홍보 : 원전시찰 - 교사 및 학생 홍보 : 원전시찰, 토론회, 교과서보완, 부교재 개발 - 여성 홍보 : 원전시찰 - 지역주민홍보 : 초청간담회, 토론회,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 반상회를 이용한 홍보 - 사내 홍보 : 직원가족 원전견학
한국전력기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보 발간, 회사소개 슬라이드 제작, 국·영문 회사종합안내서 제작 - 전력관련 기관지 등 언론매체에 회사업무 홍보 - 전시회 참가 - 반상회를 이용한 홍보
한국원자력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홍보물 및 소개책자, 슬라이드 제작 - 기자간담회, 폐기물 사업설명회 개최 - 여론지도층, 여성단체 등 초청견학 실시 - 지역주민에 대한 폐기물사업설명회 개최 - 교사 및 학생 등 초청간담회
한국핵연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 기업광고, 사보 발간, 전시회 참가 - 지역주민 초청, 사원가족 및 교사 초청, 기자초청 간담회 - 반상회를 이용한 홍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홍보 : 홍보책자발간, 영화 및 VTR 테이프 제작, 소설집필지원, 공개 토론회 개최 - 대언론 홍보 : 보도자료 제공, 간담회 개최, 신문잡지 기고 등 - 여론지도층 홍보 : 원전시찰, 강연회 실시 - 교사, 학생 홍보 : 워크숍, 슬라이드 교재 제작 및 배포, 연수교재 발간, 고교생 작문모집 - 여성, 소비자단체 홍보 : 원전시찰 및 간담회 개최 - 원전주변 지역주민 홍보 : 지역협력사업 협조 - 사내 홍보 : 연수교육 - 홍보위원회 운영

두며, 제2단계인 그 다음 5년간은 원자력문화진흥기로서 차세대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여건의 불비 등의 원인으로 그 추진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1989년 2월 사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전담부서로 원자력안전실을 설치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보수(주), 한국중공업(주), 한국핵연료(주) 등 관련기관에서도 홍보조직을 강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조직과 인원, 예산면에서 질적 및 양적인 향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반에 대해 이해와 지식의 계도를, 한국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PA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홍보를 맡도록 대체적인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홍보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PA 기법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전진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전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전시관 견학과 홍보책자 및 팸플렛류의 발간과 배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현재는 소설류, 만화류를 포함하여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책자의 발간과 배포 외에도 원자력관련 산업시설의 공개, 언론매체의 적극적 활용, 교육 및 홍보용 문화영화의 제작과 상영, VTR 및 슬라이드 등 부교재 제작과 배포, 토론회와 설명회의 개최, 기자 간담회 개최, 원전지역주민 해외원전시찰, 전시회, 중등과학교사의 원자력연수회 개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평화이용에 관한 작문모집, 사생대회 및 포스터 공모전의 개최, 여론조사의 실시 등 질적, 양적인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 PA 활동의 활성화 대책

지금까지의 일련의 PA 활동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의 달성이라는 목표에 차츰 접근해가는 노력으로 평가되나 시행과정에서 분장업무의 모호와 사업의 중첩수행 및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PA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개발에 관계되는 각 기관간의 연계성이 확립된 총체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원자력발전 PA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 PA 전담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맡든 또는 별도의 순수 민간조직을 설립하든 그 기관에게 원자력발전 PA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이 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 이 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제도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각 관련기관은 자체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맡도록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PA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기하고 결과적으로 각 관련기관의 홍보업무를 측면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보의 공개와 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자력산업계에는 아직도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자력 산업시설에 대한 출입이 자유롭도록 통제를 풀어주어야 하고, 각종 자료가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기관간에는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상호보완적인 PA활동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언론매체의 활용에 총체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만 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식은 신문, 방송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마다 언론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킬링 기고 및 독자투고를 권장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여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네번째는 홍보전문요원의 확보와 새로운 홍보기법의 연구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원자력사업은 국민적 합의없이도 여기까지 진전되어 왔으므로 PA의 필요성이나 우수한 PA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원자력계는 전문홍보요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험 있는 홍보요원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요원을 길러내야 하며, 새로운 홍보기법의 개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친원전세력을 규합하여 이를 조직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자력사업에 대하여 호감을 갖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화된 그리고 통일된 가치관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직화하여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외곽세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번째는 현장밀착홍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전 소재지 주민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밀착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업무를 사업자에게만 일임해 왔으나 원전사업의 장래가 주민의 협조여하에 달려 있는 만큼 앞으로는 총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까.

일곱번째는 사원교육을 강화하여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남을 공략하려면 먼저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일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며, 또한 전체 종업원이 확신을 가지고 대국민 PA에 나설 수 있도록 이론과 정신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덟번째는 원자력발전 PA의 국제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사업은 이제 한 나라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에 의한 원자력 발전 PA의 추진이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5. 결 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반원전 단체의 움직임에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계몽활동을 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폐만사태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재인식케 하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반원전 단체의 비판론의 허구성을 깨우쳐 주는 한편 원자력발전사업의 추진만이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는 것을 확고히 심어줌으로써 원자력산업의 밝은 진로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형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하겠으나 원자력사업 자체가 국경을 초월한 사업인만큼 반원전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PA 업무의 효과적 추진에도 국제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